

'해양쓰레기 주범' 스티로폼 부표 2025년까지 퇴출

친환경 부표 32만개 보급 해남군, 교체 비용 80% 지원

해남군이 해양쓰레기 주범인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에 나섰다.
해남군은 올해 친환경 부표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군비 보조율을 10% 늘려 38%까지 확대하고 국도비 42%를 더해 총 80%까지 지원한다.
어민 부담 비율도 30%에서 20%까지 낮췄다.
해남군은 친환경 부표 보급을 위해 지난해보다 276% 늘어난 사업비 32억원을 확보하고 친환경 부표 약 32만개를 어민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친환경 부표 지원율을 80%까지 높인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어민 부담을 줄이고 땅끝 청정바다의 친환경 수산 양식 확산과 해양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발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해남군은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발생시키는 등 해양쓰레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온 스티로폼 부표를 제로화하고 2025년까지 전체 양식업에서 친환경 부표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남군은 2021년 기준 9천607ha(19만2천140책)의 김 양식장을 보유, 전국 2위의 물김 생산지역이다.
전국 1호 유기수산물 인증을 획득한 황산 지주식 김 양식장 1천10ha에서는 스티로폼 부표, 활성처리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물김을 생산하고 있다.
해남군은 고품질 물김 생산을 위해 김 어망 지원, 양식 기자재 공급 등 10여종 사업에 대해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15년부터 페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을 통해 128t, 약 50만개의 페스티로폼을 감용 처리·재활용해 해안가에 방치되는 페스티로폼 수거 처리에



해양쓰레기의 주범인 김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도 앞장서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친환경 부표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군비 지원율을 높였다"며 "땅끝의 청정바다를 보유
한 해남에서 가장 먼저 친환경 부표 보급률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현대삼호중공업·어촌계 주거개선 등 상생발전 협약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1일 경영지원관에서 인근 어촌계와 상생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김영환 현대삼호중공업 상무와 천경우 삼호어촌계장, 강호성 고하도어촌계장이 참석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은 어촌계에서 주최하는 행사 지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고하도와 삼호 어촌계는 조선 공정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상생 발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지역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통해 회사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어촌계와의 협약 배경을 설명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왕인의 빛, 미래를 밝히다

온라인 영암왕인문화축제 개막 16일간 17개 프로그램 진행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영암군의 왕인문화축제가 1일 개막했다.
영암군은 영암왕인문화축제가 '온택트 개막콘서트'를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왕인의 빛, 미래를 밝히다'란 주제로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2개 부문 17종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축제 홈페이지(www.왕인문화축제.com)와 유튜브 '영암왕인 TV'를 개설해 온라인 축제로 열린다. 16일간의 온라인 축제 개막을 알리는 '온택트 개막콘서트'는 철저한 현장 통제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해 영상 촬영으로 진행하며, 무관중·비대면 행사로 개최된다.
1일 열린 '온택트 개막콘서트'는 '올해의 왕인' 김길환 선생의 왕인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강진,

김용임, 하동진, 조은하, 현진우, 이정아, 소명, 이혜리, 진시몬 등 인기가수가 출연했다. 개막콘서트는 유튜브 채널 '영암왕인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즐길 수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암왕인문화축제 온라인 영암마켓인 '기찬들 영암몰'을 이날 개관, 최대 50% 할인 등 대대적인 이벤트 행사로 영암의 고품질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 중이다. 이벤트 기간 중 구매를 많이 한 고객에게는 1등 영암살 50kg, 2등 30kg 등 총 156명에게 영암살 1t을 선물하는 구매왕 이벤트도 실시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위드 코로나시대 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온라인 영암왕인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16일간 다채롭고 흥미로운 축제 프로그램을 축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가족과 함께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영암군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영암왕인문화축제가 1일 온택트 콘서트를 시작으로 개막했다. 축제는 오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영암군 제공>

'선박 통행 위협' 수중 암초 만제도 간출암에 등표 설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신안군 흑산면 만제도 앞 여객선 항로에 있는 간출암에 통행 선박 안전을 위해 '만제도 동방 등표'를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하는 등표는 국비 12억원을 투입, 10월 준공 예정이다. 직경 2.3m, 높이 18m 규모의 원형 철골 구조로 설치되며 상단의 등화는 야간에 13km 이상 거리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어 선박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한다.
만제도 해상 수중 암초는 2019년 11월부터 준공 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거도행 폐속선(북포항-가거도)이 중간 기항을 위해 만제도항에 접근 시 안전 운항을 위협하고 있다.
북포항에서 서남쪽으로 105km 떨어진 외딴섬 만제도는 '삼시세끼'라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지도가 높은 지역이고,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방문객이 늘고 있다.
이 등표는 1982년 설치된 만제도 등대에 이어 두 번째 등대 시설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완도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15억 투입

고금면 가교리 등 4개 지구 하수관로 매설...하수처리장 신설도



완도군은 고금면 가교리 등 4개 지구에 215억원을 투입,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완도군은 농어촌 마을과 섬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151억원 등 총 사업비 215억원을 투입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금면 가교리, 금당면 가학리, 보길면 정동리, 생일면 서성리 등 4개 지구의 하수관로 15.4km를 매설한다.

또 하수처리장을 신설해 하루 하수처리량을 335t 늘리는 것이다.
완도군은 노화읍 내리, 약산면 어두리, 보길면 부황리 3개 지구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는 하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 시설에 모아져

오염 물질 제거 등 정화 과정을 거쳐 바다로 배출된다.
농어촌 마을에서는 각종 건축물 신축 시 오수처리 시설과 정화조 시설이 필요 없게 돼 건축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낙후된 농어촌 마을 하수도를 정비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